

월간

충

현

8

발행인 김창인
편집인 위영환
주관 신성종

대한 예수교 장로회 충현 교회
100-서울 중구 충무로 5가 36
27-9937 · 9738

1972년 7월 30일 창간
1975년 8월 10일 발행
통권 제20호

전도!

전도는 그가 참 성도나 아니냐를 결정짓는 사랑의 표준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선의 길이다.

전도자는 종으로서의 복종과 경순을 가질뿐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협동적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결국 우리의 목표는 나를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총현 교회를 나타내는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뿐』이기 때문이다.

전도



충현의 선교적 사명

—선교적 사명의 강조를 벗어나
실천을 위한 이론적 뒷받침 필요—

극장과 요리집을 무너뜨리고 그 위에 충현교회가 세워진지도 어언간 22년이 되었다. 그동안 충현교회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급진적인 발전을 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발전이 야말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여기에는 많은 의무가 뒤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창지기의 사명이며 원리인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 그러면 우리 충현교회가 이 시대에 감당하여야 할 많은 사명과 책임은 무엇인가? 그것은 한 마디로 말해서 대내적으로는 민족복음화이고 대외적으로는 동남아의 선교를 위한 안디옥교회가 되어지는 것이다.

민족복음화를 위하여 「일만교회운동」이 이미 전국적으로 일고 있으나 이를 위한 이론적인 뒷받침이 부족함으로 충현교회는 「일만교회운동」을 위한 선교학적 연구를 통하여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이론을 세워야 할 것이다.

또한 설립되는 개척교회의 경제적 부담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새로 개척된 목장에서 양들을 먹이게 될 목회자들을 질적으로 향상시켜 이 시대에 부응하는 일꾼들을 키우는 일이 또 하나의 사명인 것이다.

사실 위의 이러한 세가지 사명들은 이미 충현이 감당하고 있는 터이나, 이를 보다 더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전도협의회」같은 새로운 기구를 설립한다면 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다음은 대외적인 선교로 기왕에 활동을 시작하여 진행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선교와 앞으로 선교사를 보내게 될 일본, 그리고 동남아의 세계적 항구인 홍콩을 연결하는 「삼각선교」는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바람직한 선교라고 생각된다.

특히 홍콩선교의 중요성은 지리적인 조건으로 볼 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중공이나 북한 등의 선교가 현재의 형편으로는 직접 선교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홍콩을 통하여 이 지역에 대한 선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선교의 전략적인 면에서 볼 때 홍콩은 제2의 안디옥교회와 같은 입지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겠다. 이렇게 볼 때 홍콩에 제2의 충현교회를 세워 그곳에 동남아선교의 본부를 두고 서울과 수시로 연락을 가지면서 서로 협력한다면 동남아 복음화의 발판 구축도 결코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충현교회는 어떤 형태로든 시대적 사명인 선교운동에 앞장서야 하겠다. 그리하여 동남아 일대의 복음화는 물론 국내의 민족복음화를 위하여 많은 바 임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이 시대의 안디옥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게 될 것이다. 이는 바로 하나님께서 충현에게 주신 사명인 것이며 기필코 이루어야 할 우리의 의무인 것이다.

〈추간〉



차례

(선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언에	
되자/김태현	3
(기관소개) 유년부	4
(해외선교) 6·7월 보고서	5
특집 ◇ 전도의 동기와 목적/신성종	6
집 ◇ 개인 전도법 편집집	8
(대담) 대만에서 오신 목사님과 대담	10
(칼럼) 결결(結晶)의 시간/이형숙	11
(만평) 농어촌전도/오용기	11
(성령론) 성령의 충만/정상우	12
(구역공과) 9월공과	13
(교회 뉴스)	14

8월의 행사

- 3/제직회 월례회
- 10/남전도회 월례회
- 11/여전도회 월례회 권사회 월례회
- 11/제4회 농어촌 전도대 파송
- 17/교육위원회 월례회
- 31/구역친찬회 월례회
- 31/교육연구위원회 월례회
- 31/주일학교 교사 월례회
- ◇ 김창인 목사 방송설교/기독교방송 매주
- 화요일 오전 5시 35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자

〈성경/사도행전 1장 8절〉

「은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지금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때는 마지막 때입니다.

먼저 믿게 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진정 주님 앞에 설날은 가까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우리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복음을 증거하여야 하겠습니다. 이 일은 너무도 중대합니다. 시급합니다.

1. 한 영혼을 주께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무거운 짐을 벗겨줄과 같기 때문입니다(마 11:8)

사마리아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한 남자로 부족하여 다섯명이 나 되는 남자에게서 만족을 찾아 보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하루 하루의 삶은 더욱 무겁고 고달프기만 하였습니다. 이 무겁고 고달픈 인생의 짐을 그녀는 때마침 수가성을 지나시던 주님을 통하여 벗어 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길처럼 가파른 고갯길입니다. 할아버지 한분이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땀을 뻘뻘 흘리며 오르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운전수는 너무도 측은하여 차를 세우고 차에 타시라고 하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몇번이나 고맙다는 인사를 하시며 차를 탔습니다. 그렇게 험하고 지겹게 느껴지던 고갯길을 자동차를 타니 단숨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함께 그 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이상한 듯이 할아버지만을 쳐다봅니다. 할아버지는 짐을 어깨에 걸머진 채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짐을 내려 놓으시지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리하시오. 차를 태워준 것만도 고마운데 짐까지 내려놓다니…….”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2. 한 영혼을 주께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구렁이에 빠진 양을 끌어냄과 같기 때문입니다(마 12:11)

450명의 바알선지와 대결하여 승리하였던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쫓기다 못해 로렐나무 아래 쓰러져 차라리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바알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이 7천명이나 있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스스로 사경을 헤매이던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고 마침내 죽음의 구렁이에서 헤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3. 한 영혼을 주께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감옥에 갇힌 자를 놓아줄과 같기 때문입니다(사 42:7)

한 여인이 출가하여 아이를 낳기만 하면 죽었습니다. 그래서 몹시도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천에다 글쓴 것을 주며 농 속에 다 잘 보관하면 아이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말대로 하였습니다. 얼마 후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6살이 되도록 그 여인은 농 속에 보관된 천조각 때문에 자기 아이가 죽지 않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답답하고도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같은 무지로 여러가지 우상의 종이 되어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 너무도 이 땅위에는 많습니다.

4. 한 영혼을 주께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중한 병에 고생하는 자를 고쳐줄과 같기 때문입니다(마 9:12)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람에게에는 죽음과 온갖 질병이 오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때도 많은 병자들이 물려와 고침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병자들을 치료하여 주신 후에는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고 경계하셨습니다.

이처럼 한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며 우리에게 분부된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에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됩시다.



김 태 현 전도사

체험적인 신앙인으로 키우는 데 역점 두어

유년부는 국민학교 1학년으로부터 3학년까지의 어린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400여명의 유년부 어린이가 65명의 교사들에 의해 전국일꾼으로 키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어린이는 대부분 부모님을 따라 먼 거리에서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출석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과 교사들이 주일 아침 어린이 예배에는 물론 유년부의 각종 모임에 있어 능동적인 자세에서 적극 참여하며 매우 협조적이라는 점이 유년부의 자랑이라 하겠습니다.

교육방법에 있어서도 종래의 주입식이나 암기식 방법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이보다는 비록 나이가 어리다 할찌라도 스스로 성경을 읽게 하고, 스스로 기도하게 하며, 스스로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스스로 자신을 키워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모든 설교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교사들도 예수님과 같은 제자 훈련방법을 이용하도록 훈련하고 있습니다.

유년부의 지도방침은 대략 다음과 같은 세가지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이루고자 합니다.

첫째 모든 어린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은 어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처럼 어려서부터 성령이 충만하여 스스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전도에 힘쓰는 어린이, 주일이면 기쁨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어린이가 되도록 지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어린이들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만화나 텔레비전과 같은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둘째 성경 읽기로 세상 지식에 대항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학교의 교육만으로는 결코 완전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또한 전인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요즘은 비기독교적인 교육으로 어린이들의 신앙생활에 많은 혼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상을 숭배하는 제사법, 문화제라고 하는 사찰에 대한 강조, 불교 중흥을 위한 교육등입니다. 이와 같은 것에 대항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밖에 달릴 길이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셋째 어린이에게 기도의 체험을 어려서부터 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기도의 응답에 대한 체험을 물어보게 되면 실제로 체험을 하였다고 대답하는 어린이의 수가 많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생활이 절대로 연령에 관계 없는 것이라고 본다면 이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어려서부터 살아 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승근 전도사·유년부 지도)

생동력 있는 교회

=기도와 협동에 크게 감명=

=대만에도 기도운동 펼쳐=

지난 7월 20일부터 열흘간 우리교회에 체류하며 우리교회의 이모저모를 주의깊게 관찰한 세사람이 있었다.

한국교회의 부흥발전에 감명을 받고 안타깝고 간절한 소망속에 그 비결을 배우고자 한국을 방문한 대만의 5명의 목사님 가운데 세분이 마지막 일정으로 우리 교회에 오서 열흘동안 지나셨다. 지난 7월 17일 오후 특별집회를 마친 후 잠시 시간을 얻어 그 동안에 한국에서 느낀 점을 몇마디 물어 보았다.

이 자리에는 세분의 대만목사님(林憲:臺灣基督長老教會 新店教會, 王黎明:臺灣基督長老教會 信愛教會, 劉特清:臺灣基督長老教會 富里教會)과 「충현」지의 조선근·정은표간사가 참석했고 중국어 통역에 윤영탁 전도사, 사회에 이형수 간사가 담당했다.

—이처럼 한국에 온 목적, 또 그동안의 일정은?—

지난 7월 2일에 도착했다. 우리는 시찰이나 방문을 목적으로 온게 아니고,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에서 차지하게 된 그 비결과 것처럼 한국 교회를 부흥발전케 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고 싶어서 왔다. 따라서 우리는 이 기간동안 철저하게 한국교인들과 많이 접촉하며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일선 교역자들과 함께 먹고 자며 그들의 모든면을 일일이 주시하고 있다. 즉 목회방법, 청년지도법, 주일학교운영법, 교회와 사회와의 관계 등 전반적인 문제를 직접 우리의 눈으로 보고 느끼며 그 가운데서 한국교회의 부흥발전의 비결을 알고자 왔다.

우리는 각 개인 자격으로 온 것이 아니라 중화민국 기독교전도회(中華民國基督教傳道會)가 추천하여 한국에 있는 아세아복음선교회연맹의 초청으로 5명이 함께 왔다.

우리는 그동안 지방과 서울의 교회를 몇군데씩 보았고 지난 7월 17, 18일에도 제3회 세계기독교호교(護敎)반공연합대회에 참석했고 3명은 지난 7월 20일 충현교회에 오게 된 것이다.

—그동안에 한국에 체류하시면서 느낀 점은? 한국 전반과 한국교회에 대하여—

완전히 갱신되어 변했던 25년 전의 그전만 속에서 이처럼 놀라운 발전을 이룬것에 모두가 심히 놀라고 있다. 또한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느낀 점은 첫째 교역자와 제직간의 긴밀한 상호협조, 둘째 성도들의 열심, 셋째 성도들의 철저한 신앙생활(이는 특히 기도에 열심이란 점을 강조했다)이다. 이런 바탕에서 한국교회가

부흥했다고 본다.

—그러면 우리교회에서 느낀 점은?—

살아있는, 생동력(生動力)있는 교회라는 인상을 받았다. 주일의 아침시간부터 저녁시간까지 구석 구석에서 모이는 집회, 찬송소리 등 무척 감명을 받았다. 이는 한국교회 전체의 특징인 기도에 열심하는 교회기때문이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충현교회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과 교인 모두가 한가지 목적아래에 모이는 협력심이 강하기 때문인 것 같다.

그렇다면 이처럼 한국교회가 기도에 열심이며 서로 합동을 잘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있는가고 질문을 하였다.

세분이 피차 얼굴을 마주보며 잠시의 침묵이 흐른 후林木사님이 종이를 끌어당겨 적으셨다. 「天時, 地利, 人和」 즉 현재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시기와 그런 지리적위치 그것이 큰 이유며 그런 바탕위에 서로가 한 마음으로 뭉쳐 하나님 앞에 모일 수 있었다고 생각하신다며 대만을 한국과 비슷한 입장에 있지만 그처럼 뭉칠 수 없음을 무척 안타까워 하셨다.

—좋은 점만 말씀하셨는데...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점은?—

① 대부분의 교회가 교회당이 작아서 2부, 3부를 드리는데 이것은 상호연결이나 친교 등의 면에서 매우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② 각부서별 그룹별로 많이 모이고 또한 그런 그룹들이 발전, 성장하는데 전체적인 친화, 친교면에서 문제가 있는것 같다. ③ 어느교회에 가나 평일에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집회를 하는데 그러면서 과연 올바른 사회,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지 지극히 염려스러웠다. ④ 박수치고 복치며 열심히 찬송하는데, 그 태도를 보니 이해하기 곤란한 점이 많았다. 즉 정직은 사람, 신발을 벗고 있는 사람들, 경건생활이 부족한 것 같다. ⑤ 많은 교역자들이 서로 각각의 집을 가지고 혹은 먼곳에 있는 본도 있는데 한곳에 몰아 군(群)을 이룬다면 수고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다. ⑥ 안타깝고 큰 문제는 언어가 소통하지 못한 점이였다. 충현교회와 같이 큰 교회는 많은 외국 손님이 드나들터인데 동서통역장치 같은 것을 설치한다면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세분은 이번기회에 크게 깨달은 바가 있다고 하셨다. 그것은 단 한가지인데, 기도의 중요성이라고 했다. 이 구동성으로 기도의 중요성과 평신도의 신앙훈련, 제직훈련의 중요성을 절감하며 대만으로 가서서 기도운동을 전개하실 것을 다짐하고 계셨다.

이와 같은 새로운 결심속에 비치는 그 서운하고 안타까운 기분은 원일인지..... 앞길에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짧은 시간을 마쳤다.

■ 해외선교 ■

● 인도네시아의 서만수 선교사는 지난 6월 30일에는 6월 정기보고를, 7월 15일에는 7월 중간보고서를 각각 선교회장 앞으로 보내왔다. 그 가운데 중요한 내용만을 요약하여 교우들에게 알린다. <편집자>

6·7월 보고서

■ 보고사항

1. 선교관 건축상황

1975년 6월 19일 우리의 오랜 기도의 제목이었던 선교관 건축을 위한 기공식을 가지게 되었다. 이날 기공된 본건물(9m×17m)과 부속건물(5m×9m)은 7월 15일 현재 75%가 완공되었고 아울러 실시하고 있는 울타리 공사는 85%가 완공되어 준공식을 갖게 될 날도 머지 않다고 이 선교회관이 완공되어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찬송과 기도를 드리게 되는 날, 우리는 또 다시 감사의 눈물을 맛보게 될 것이다.

2. 선교회관 건축 재정상황

선교회관 건축을 위하여 당장 필요한 2만 9천 달러 가운데 상당액이 부족하여 우선 급한대로 현지 은행에서 월 2%의 은행이자율로 지급하기로 하고 5천 달러를 차용하였다. 이와같이 건축을 위한 착수금 및 준공비뿐만이 아니라 대지 잔금과 수속비도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상태이다.

3. Y. M. C. A. 한국대표 방문

고용진 장로(서울 동산교회 시무)를 단장으로 한 한국 Y. M. C. A. 대표단이 싱가포르 회의에 참석한 후에 우리 선교부를 방문하였다. 고국을 떠난 먼 지역에서 뜨거운 악수를 나누며 서로를 격려했다.

■ 청원사항

① 선교관 건축을 위한 제반 경비를 조속히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건강문제로 현지 사역에 극히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해결을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선교를 위한 기도

- 현재 진행중인 인도네시아의 해외선교회 회관 건축이 예정대로 무사히 끝낼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히 이에 소요되는 건축비의 순조로운 해결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인도네시아의 서만수 선교사 내외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일본에 있는 교포들을 위하여 계속 훈련을 쌓으며 준비하고 있는 홍종만 목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 충현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분부 받은 해외선교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될 수 있도록 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신성종 강도사

〈대학부 지도〉

◇ 전도의 동기와 목적 ◇

- ◇...전도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동기와 목...◇
- ◇...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 ◇...전도의 동기는 다이빙하는 사람의 도약판...◇
- ◇...(springboard)과 같고 전도의 목적은 여행자...◇
- ◇...의 목표지점과 같기 때문이다. 이제 간략하게...◇
- ◇...나마 전도의 동기와 목적을 성경적인 측면에...◇
- ◇...서 살펴보기로 하자. 필자 ◇

■ 전도의 동기

성도들이 전도를 하는 이유 또는 동기는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그 많은 시간·재물·재능을 사람의 눈에 별로 보이지도 않는 전도에 전도자는 소비하는 것일까? 이것은 많은 불신자들의 질문이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도 이에 대하여 회의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다음의 네가지 즉 하나님의 자기계시, 복음의 본질, 교회의 본질 및 인간의 상태가 전도(선교)를 요구한다고 말한다.

1. 하나님의 자기계시(self-revelation)

① 유일신으로서의 하나님

전도의 궁극적 기초는 「하나님은 한분」이시라는 하나님의 계시에 있다. 그런데 이 유일신 사상은 이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심을 말해준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소명(창 12:3)도 이 선교적 측면에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참고: 왕상 8:43; 사 45:21-22).

② 주님(Lord)으로서의 하나님

하나님의 왕권은 그의 창조와 구원에서 이중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자비로우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특별히 구약의 출애굽 사건과 신약의 십자가 사건에서 나타난다(출 15:2; 사 43:1; 롬 10:13; 10:9; 골 1:16). 그런데 전도(선교)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왕권(Lordship)을 인정하고 고백하도록 하는 것이다(빌 2:20-11).

2. 복음의 본질

전도의 두번째 동기는 복음의 본질이 그것을 요구한다는 데 있다.

① 계시로서의 복음

성경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으로서의 대상이 아

□ 특집 : 전도

니고(사 40:22; 출 20:4; 사 40:18, 46:5; 55:8; 이하 출 33:20) 또 인간의 지혜로서의 대상이 아니며(고전 1:21) 오직 역사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계시되었다(롬 1:17이하; 고전 2:7 이하; 롬 10:25이하). 따라서 교회는 이 계시의 소유자로서 불가피하게 이를 증거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② 선포(proclamation)로서의 복음

복음이란 「좋은 소식-good news」를 뜻하며 이 소식은 선포되어야 한다. 이스라엘의 구원사와 예수님의 생애는 복음이 선포되어야 할 것을 요구한다(롬 10:17; 롬 10:14). 이것은 선전이나 광고와 다른 성질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에 대한 순종을 뜻하기 때문이다.

전도의 동기와 목적

③ 초대(invitation)로서의 복음

창세기 3:9에서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신 첫 질문에서 계시록 22:17의 세번에 걸친 “오라-come”는 말씀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활동으로 가득차 있다(호 11:1, 8; 요 3:16). 사도 바울은 화해하기 위하여 세계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더 잘 깨달았다(골 1:21; 롬 5:10; 골 1:20; 롬 3:24).

사실 복음은 본질상 인간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 초대장이다.

3. 교회의 본질

복음의 본질은 바로 교회의 본질을 결정해 준다. 에밀 부른너가 말한대로 「불은 타는 것으로서만 존재하듯 교회는 선교하는 것으로서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이 전회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엡 1:22이하; 4:4 이하; 고전 12:12이하)으로 볼 때 분명해진다. 몸이란 본래 머리의 의지를 표현하는 유기체이다. 따라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하여야 한다(빌 2:15; 골 1:25이하). 따라서 교회는 전도(선교) 없이 생각할 수 없다.

② 종의 종(servant of servant)으로서의 교회

종은 자신의 일을 하지 않는다. 자신의 의사나 욕망을 따르지 않고 오직 주인의 명령만 따른다. 교회도 꼭 같다. 그런데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은 종이셨다(눅 22:27; 막 10:45).

그러므로 교회는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하여 종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은 사도란 말 속에 포함되어 있다. 사도 중의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셨다(요 3:17; 6:29; 8:42; 17:3; 히 3:1).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사도들을 보내셨다(요 17:8; 20:21).

그런데 교회는 사도적 선교(apostolic missions)의 상속자이다(엡 3:10; 2:19이하). 예수님께서 종이였기 때문에 교회에 세상을 섬기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바



로 이 이유 때문에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사신들이다(고후 5:20; 빌 2:5 이하).

③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자(debtor)로서의 교회

롬 1:14이하, 고전 4:1, 고전 9:16에 보면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자로서 활동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바로 이 점에서 교회는 전도해야 하는 것이다.

4. 인간의 상태(predicament)

인간의 현상태는 전도(선교)를 요구하고 있다(롬 3:23).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준 영광스러운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고전 3:16이하, 6:19; 고후 6:16; 엡 2:21).

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에 대하여 성경은 여러가지로 묘사하고 있다(롬 1:21; 엡 2:2; 골 1:13; 갈 4:3; 롬 5:12; 롬 7:24). 이 비참은 성도들에게 그 낯익을 수 없는 심정을 불러일으킨다.

②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인간

사람은 누구나가 죽을 앞에서 연속해진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아래 있는 인간(롬 1:18; 2:5 이하; 9:22; 엡 5:6; 골 3:6; 살전 2:16)을 볼 때 서급히 전도하지 않고는 건널 수 없는 동기를 준다. 왜냐하면 인간의 살길은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해하여 그의 심판을 면하고 그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이다.

전도의 두가지 목적

1. 전도의 궁극적 목적에 대하여는 사 6:18, 35:2; 롬 8:17; 벧전 5:11; 롬 9:23; 고전 2:7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와의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성도들의 영광의 참여는 이미 시작되었다(요 17:22). 이것은 자녀로서의 영광이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화해는 벌써 「십자가의 보혈」(골 1:20)로 성취되었으나 아직도 만물이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롬 8:21)에 이르기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점이다. 요컨대 전도의 궁극적 목적은 빌 2:11의 말씀대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데 있다.

2. 전도의 두번째 목적은 이 궁극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출발점으로서의 직접 목표들이다. 여기에는 크게 세가지를 들 수 있다.

① 복음의 전파이다(엡 3:9-7; 고후 4:4).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살후 2:14).

②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의 인침(엡 1:13-14)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중생이라고 부른다.

③ 교회의 설립이다(엡 1:22, 4:14, 골 1:18).

그런데 위의 세가지 직접적 목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출발점이고 준비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이 궁극적 목적은 아니다.

맺음말

이상에서 우리는 전도의 동기과 목적을 살펴보았다. 요컨대 전도는 그가 참 성도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사랑의 표준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선의 길이다. 따라서 이번에 놓여준으로 파송되는 60여명의 전도대원들은 종으로서의 복종과 겸손을 가질뿐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협동적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결국 우리의 목표는 나를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종현교회를 나타내는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뿐이기 때문이다.

◇전도/회고와 추억◇

가장 흐뭇한 경험

박 숙 영

경기도 파주군 도내리 도내교회였다. 1972년도 여름, 아폴로농병인가가 유행하던 불쾌한 여름이었다. 정광일 목사님을 지도교역자로 하여 6명의 대원이 한팀이 되었다. 모두들 열심으로 전도에 전념했다. 시골의 정취도 못 느끼고 전도에 열심이었다.

낮에 전도한 사람이 저녁집회에 나왔을 때 그 기쁨은 뭐라 비길 수 없었다. 반면에 하루 많이 전도를 해서 저녁에 나와도 모르는 경우가 있었고 그 다음날 또 증복되는 웃겨못한 난센스도 있었다. 하지만 내 걸지 못한 인생의 경험 가운데 가장 흐뭇한 일들이었다. 지금도 언젠가는 일들이 있을때마다 그때의 일들을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흐뭇한 기분이 되곤 한다.

(중등부 교사)

개 인 전 도 법

편 집 실

○... 전도의 원리는 모두 같지만 그 방...○
○...법에 있어서는 환경과 처지 그리고 경...○
○...법에 따라 많은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다. ...○
○... 여기에 소개하고자 하는 「개인전도...○
○...법」은 현재 충청도 지방에서 선교하...○
○...고 있는 나빈선 목사의 창안이다. ...○
○... 올해도 실시될, 하기 전도대 파송...○
○...을 앞두고 파송되는 전도대원들을 위...○
○...하여, 또 평소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개인전도를 하고자 할 때 도움이 되...○
○...기를 원하므로 이 면을 구성하여 보...○
○...았다. ...○

이 전도방법의 특징은 전도지가 없이도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종이와 연필 또는 흙바닥에 막대기만 가지고도 시청각적인 효과를 살려 이야기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유·무식을 막론하고 이 방법을 사용하면 쉽게 복음의 내용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1. 도입단계

「개인전도법」하면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전도방법을 말하게 된다. 물론 예수님이 전도하실 때는 그 상대가 유대인이라는 점에서 지금과 그 대화의 내용이 다른 면도 있다. 그러나 복음의 핵심과 방법만은 그 이상의 것을 현재의 우리는 찾을 수 없다.

복음의 내용이라고 하면 하나님·죄·그리스도·믿음이라고 요약해서 말할 수 있다. 이 순서는 형편에 따라 바뀔 수는 있어도 내용 중 그 어떤 것 하나도 삭제되거나 변할 수 없다.

그리고 복음의 내용이 전달되기에 앞서 도입단계가 또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하

여 자연스럽고 진지하게 이끄느냐 하는 것은 지혜와 기술에 속하는 것으로 전도대상자를 붙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물 길러 온 수가 성 여인에게 복음을 말씀하시기 전에 “물을 달라.” “생수를 주리라.”는 등의 말씀으로 상대자의 관심과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었다.

■ 처음 시작을 이렇게

① 우리는 먼저 친절한 인사와 함께 상대자가 관심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 상대자가 처한 형편에서 접촉을 시작하여야 한다. 남의 집을 방문할 때나 길에서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상대방의 형편을 관심있게 관찰하면서 그날의 중요한 관심사를 비롯하여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관찰하여 말한다.

② 그리고 상대자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를 이야기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상대자를 칭찬할 것이요 결코 비관적인 말은 하지 않는다.

③ 이렇게 하여 대화가 연결되었다고 생각되면 복음과 관계있는 질문을 조심스럽게 한다. 이 질문에 있어 주의할 것은 독선적인 태도가 아니라 진실하고 사랑에 찬 태도로 하여야 한다.

2. 복음의 전달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이다.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항상 무서운 벌을 주는 분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한다.

◇ 전도/회고와 추억 ◇

축호전도에 자신

권 석 기

1973년도 하기였다.

전남 삼례읍 삼례교회로 갔었다. 노의일전도사를 중심으로 5명의 대원으로 구성됐다. 서로가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기도회를 거치고 함께 열차를 타고 가는 동안 우리는 그처럼 타이트하게 묶여질 수가 없었다.

모두가 처음이어서 서툴렀지만 우린 열심으로 했다. 전도, 부흥집회, 어린이 성경학교 등으로 우리의 온 힘을 쏟아 부었다. 저녁엔 모기불 밑에서 다음날의 일을 점검하여 서로를 격려하곤 했다.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열차 안에서 서로 거스르며 얼굴들을 보고 자신들도 모를 기쁨속에서 마음이 설렘했다. 많은 성과중에서 성과는 그처럼 자신없던 축호전도에 자신이 붙었다는 것이다. <유년부 교사>

◇ 전도/회고와 추억 ◇

막내로서 열심·열심속에

한 근 옥

아마도 72년인가 싶다.

대학 1년생이었던 것 같다. 우리팀에서 제일 막내였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열심히 쫓아다녔던 것 같다. 가고 싶다는 막연하나마 확실한 소망가운데 참가했었다. 모든 것이 좋았다. 모든 추억이 희미해졌지만 무척 열심히 뛰었다는 생각과 아울러 그처럼 열심히 뛰었다 생각하면 흐뭇한 미소가 잔잔하게 입가에 떠돈다. 하기전도는 나에게 큰 변화를 주었다. 매사에 확신 속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계기를 주었던 것이다.

8월의 노염속에 뿔어내던 우리의 열심은 더위를 느끼지도 못했다. 여름이 와 더위에 허덕일때면 그 때가 생각키운다. 꼭 다시한번 가고 싶다는 소망이 금년에도 또 못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엔 막내노릇을 못한다는 생각때문에 부쩍 열심을 못 내는지... <초등부 교사>

대화가 연결되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복음의 내용을 소개해 나간다

① 선생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성경은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 나 님

-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마 19:6; 마 19:16).
- 흠이 없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벧전 1:16)
- 언제나 미워하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요일 4: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 3:16).

② 그런데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하 나 님

죄

사 람

-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습니다(약 4:17)
- 하나님의 법을 어깁니다(요 3:4).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 3:23).

③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이가 끊어졌습니다.

- 하나님은 기록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죄를 미워하십니다.
- 사람은 죄에서 벗어나려고 스스로 아무리 노력하여도 악하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 이러한 죄의 결과는 사망

하 나 님

죄 = 사 망

사 람

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가 완전히 끊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롬 6:23).

④ 하나님은 어떻게 하심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셨습니까?—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 나 님

죄 = 사 망

사 람

- 하나님은 인간의 죄 됨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 그의 외아들 예수님을 화해자로 보내셨습니다.
- 예수님은 우리 죄값을 갚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 이 죽음은 하나님과의 사이를 바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벧전 3:18).

하 나 님

죄 = 사 망

사 람

- ⑤ 회개하고 예수를 그 마음에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구원에 이릅니다.
- 사람은 죄를 용서받습니다
- 사람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갖게 됩니다.
-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가족관계를 갖게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 1:12).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계속 믿기로 결심하면 위하여 함께 기도하여 주교 회로 인도합니다.

◇ 전도/각오와 기대 ◇

신앙훈련의 좋은 기회

이 은 순

「신앙은 훈련이고, 그 훈련은 기회있을 때마다 뛰어들어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자라면서 계속 주위에서 들어왔다.

이제 어느정도 자유로워지고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상태에서 맞이한 금년 여름은 나에게 첫 번째의 신앙훈련의 기회가 되는 셈이다. 여름여린이 성경학교, 대학부하기수양회등의 기회가 있지만 유난히 하기놓여온과송전도에 신경을 쓰게 됨은 어인 일인지?

아마도 전도대원 각자의 자발적인 책임이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이리라. 처음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이며 따라서 이 기회를 통해 새로운 신앙의 성장과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앞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란 것을 확신하며 기대한다.

<대학부 회원>

◇ 전도/각오와 기대 ② ◇

새로운 헌신을 다짐

최 혜 석

오랜 기간동안 방황하였다.

또 다시 안정과 질서를 구하던 중 충현교회를 소개 받았고 곧 이어 청년부에 출석했다. 이번 하기수양회를 통해 지난 날의 열심과 헌신이 그러럼 그리울 수가 없었다.

이제는 다시는 주님의 품을 떠나지 말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이제부터는 좀 더 큰 열심으로 주님을 사랑해야겠다는 결심속에 하기전도대의 일원으로 자원했다.

모든 일에 자신없고 낯설지만 주님이 주신 특별한 기회임으로 생각하고 가슴 설레며 기다리고 있다.

금년 여름의 짧은 기간(나에게는 전 기간이다)을 통하여 주님께 새로운 헌신의 기회가 될 것을 굳게 믿는 것이다.

<청년부 회원>

8 월의 열기보다 더한 열심으로

을 9대의 53명이 참가한다. 우리가 할 일은 기도와 물질로 아낌 없이 격려하여 서로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한 목적 아래 땀을 뭉쳐야 한다는 일 뿐이다. <형>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마 18:19, 20)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표어(주제)로 내걸고 열기 뽐는 이 더운 여름에 농어촌 파송 전도를 계획하고 있다.

72년에 시작한 이 농어촌 파송전도는 금년들어 4회를 기록하고 있다.

농어촌교회의 부흥 발전을 위하여 우리교회가 실시하고 있는 농어촌교회 평신도 지도자 훈련, 교역자 초청훈련등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는 하기 농어촌 파송전도는 피차간에 큰 힘을 얻게되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금년 파송전도의 특징은 이미 실시한 농어촌 평신도 지도자 훈련에 참가하였던 교회에서 신청을 받아 그 현지교회로 파송전도를 나간다는 점이며 또 그곳에서 저녁집회를 위해서 이미 부흥집회 안내 포스터가 배포 완료했다는 점이다.

이미 7월 28일 전도대 각대별 편성을 마치고 전도 훈련 및 기도회를 통해서로를 익히고능력을 얻고

자 애쓰고 있다. 모든 준비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

금년엔 특히 우리교회에서 전개하고 있는 총동원전도의 기세가 덧붙여 파송전도에 대한 관심도 예전에 볼 수 없이 높다.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후방지원이니, 곧 기도와 물질로 아낌없이 격려하여 서로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한 목적 아래

땀을 뭉쳐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못지 않게 전도자의 각오도 중요하다. 타이르하게 짜여진 일정보를 볼 때 더욱 그렇다. 새벽기도회, 대원조례(아침식사전 일과표 점검), 전도출발전 출발예배, 오전전도활동, 중식, 오후전도활동, 저녁부흥집회, 예배후 라담회, 반성회 등으로 짜여져 있다.

그러나 대기와 대지에서 내뿜는 열기보다 더한 열심으로 임하는 대원들에게 문제는 없을 것이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이 높이 높이 나타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 *

<충현만평>



(오 응 기)

◇전도/각오와 기대◇

맘껏 하고픈 전도

김 구 현

생활과 시간에 쫓기면서 늘 생각해 왔었다. 한번 맘껏 전도를 하고픈다고...매년 하기전도를 계획했지만 실행에 못 옮기던 중 올해엔 몇달 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다.

내 나름대로의 어떤 목적(즉 경험을 하고픈가)이 있어서가 아니라 맘껏 전도를 하고픈 뿐이다.

경험자들의 이야기는 밥만 먹으면 전도, 전도, 하루종일 전도만 한다는 이야기였다.

또 그외에도 기대되는 것은 전도를 다녀온 사람들의 얼굴에서 볼 수 있는 자신감과 확신감, 그리고 기쁨 등을 아울러 기대하고 있다.

우리 전도팀의 모든 일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임하길 기도한다.

<청년부 회원>

◇전도/각오와 기대◇

주의 자녀됨을 확증

정 글 수

항상 마음을 졸이고 있었다. 「전도」를 해야겠는데... 「전도」를 해야겠는데...하며.

그리스도인임을 자신이나 타인에게 증거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 전도란 것을. 그리고 이는 주님의 지상명령이란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이룰 말할 수 없었다.

이럴 때에, 이처럼 하게전도제의 일원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른다.

앞으로 전개될 일들에 대해 상상과 기대로 마음을 설레고 있다.

이번 기회에 그처럼 원하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자신과 타인에게 확증시킬 것이다. 그래서 꼭 차오르는 기쁨과 소망을 안고 돌아 올 것이다.

<청년부 회원>

—제 4 회— 농어촌교회 평신도 지도자 초청훈련

지난 7월 17일 오후 7시 당회실에서 있었던 「제 4 회 농어촌교회 평신도 지도자 초청훈련」 평가회의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한다. 평가회 참가자/김창배·정기성·홍종만·김태현·이승근·이두란·최순복·장봉선·정연희

- ◇ 훈련실시시간/1975년 7월 10일~14일
- ◇ 훈련참가자/44개교회 82명(남 49명, 여 33명)
- ◇ 훈련실시소요경비/총 413,210원

■ 평 가

1. 수강대상자 선정 : 올해도 예년과 같이 최소한 주교 부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계획하였음에도 참가자들의 실태를 보면 처음의 계획과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수준이 고르지 못함으로 오는 성과의 빈약성을 해결할 수 있는 시정책이 필요하다.
2. 강의 내용 : ① 이론적이고 학술적인 강의보다는 실제적인 강의가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는 주무처로 하여금 강의내용을 결정하기 전에 농어촌의 실정을 상세히 조사하게 할 필요가 있다. ② 가능한 한 시청각 교재를 많이 사용하도록 한다.
3. 훈련시기 : 농번기를 피하여 7월 말이나 8월 초가 좋은 듯하며 훈련기간을 1~2일 더 연장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4. 생활지도 : 강의중 조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는 취침시간을 엄수하지 않은 결과로 보며 강의중 틈틈이 가벼운 운동을 하게 하여 앞으로는 각실마다 지도 교역자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

■ 제 언

1. 훈련대상자 선정을 최소한 주교지도 부장급 이상자로서 장로·집사를 대상으로 하며 학력도 가급적 중졸이상으로 한다.
2. 늦어도 2개월 전에 신문을 통해 광고하며 선정된 지역(노회별)의 개교회로 하여금 신청을 하게 하되 소속노회는 인준하는 정도로 하게 한다.
3. 훈련시기는 농번기를 피해서 7월 말에서 8월 초에 실시하도록 한다.
4. 훈련생들과의 진지한 대화를 가짐으로써 앞으로의 농어촌교회의 지도육성 대책이 효과적으로 마련되도록 한다. 따라서 보다 건설적이고 실제적인 훈련생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좌담회 시간을 훈련을 다 마치고 귀가하는 끝날에 배정해서 훈련시간에 쫓기는 부담이 없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좌담회가 되도록 한다.

1975.7.27 김창배

結 晶 의 시 간

이 형 수

하루가 끝나가는 시간이었다.
대낮의 그 무덥던 열기가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다. 어린아이들과 같은 환성과 기쁨으로 꽉 차 있던 운동장에도 깊은 밤의 적막이 조용히 깔리고 있었다.

우리들의 가슴은 끓어오르는 열기와 서서히 번지는 감동과 기대로 파문치고 있었다.
모든 순서를 끝내 가는 마지막 시간이었다. 이제 우리는 그동안의 시간들을 통하여 모든 것을 깨닫고 있었다. 남은 것은 우리의 마음판에 온전하게 새겨 넣는, 즉 결단하는 일만 남아 있었던 것이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왼쪽팔을 앞사람의 오른쪽어깨에 놓고 전부를 하나로 묶어 조금은 경사진 들장막을 조용히 걸어 올라갔다. 온 주위가 어두웠다. 유난히도 총기를 더해 가는 별빛과 길 우측 계곡에서 흐르는 조용한 물소리 외에는 모든 것이 정지해 있었다.

우리는 낮에 뛰놀던 운동장으로 올라갔다. 운동장 한가운데에는 희뿌연 십자가가 서 있었다. 「자비하신 예수여, 제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 이 없으니 슬픈 자가……」 조용하게 숲속에서 들려오는 찬송소리와 앞에 서 있는 십자가를 보며 우리의 마음은 자신도 모르게 슬며시 열리고 있었다. 것처럼 안타깝게 울부짖어도 마치 천만군의 돌로 눌러 놓은 듯 하였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문이 열리고 있는 것이었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맡게 합소서…」 우리는 찬송을 불렀다. 아! 우리가 언제 이렇게 정성과 마음을 모두어 찬송을 불러 보았다는 말인가? 이제 우리의 마음은 활짝 열려 있었다. 남은것은 이 열린 마음에 點火하는 일이었다. 그 點火는 쉽게 이루어졌다.

「點火에 붙이는 글, 그러니까 1973년 여름, 우리는 젊은피를 그리스도에게 드리기 위해 이처럼 모였었습니다.…… 太初에 어두움이 있었었습니다.…… 太初에 빛이 있었었습니다……」

이어서 십자가에 點火가 됐다. 검은 연기속에 십자가의 형상이 나타나고 붉은 기운이 십자가를 휩싸고 있었다. 우린 微動도 없이 타오르는 십자가를 응시하고 있었다. 아직도 못하는 사이에 조용히 흐르는 눈물이 불빛에 반사되어 번득이고 있었다. 가슴속에 타고오르던 열기가, 감동이 조용히 결정(結晶)되고 있었다.

「하나님여여, 하나님여여,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사용하옵소서」 타고르는 불꽃과 함께 한껏 높아진 二重唄의 소리가 불꽃속으로, 우리의 가슴속으로 파고 들었다. (제 5 회 청년부 하기수양회에서 한 장면).

성령의 충만

<에베소 5장 18절>

정 상 우 목사

<부목사·청년부지도>

<언제 순서>

1. 성령의 올바른 인식
2. 성령 받은 증거
3. 성령의 충만

성령에서 우리들의 행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 두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행 16:31”에 있는 말씀으로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명령이고 두번째는 “엡 5:18”에 있는 말씀으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명령이다.

첫번째 명령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주어지는 명령이고 두번째 명령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명령이다. 첫째 명령은 “생명의 부어”(구원)를 위한 것이며 둘째 명령은 “생명의 풍성”을 위한 명령인 것이다 (요한 10:10).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엡 5:18)는 명령만큼 중요한 명령은 없는 것이다. 물론 구약의 큰 명령인 모세의 십계명도 중요하고 신약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마 28:19)는 예수님의 명령도 중요하지만 이 명령들보다 더 중요한 명령은 바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명령인 것이다.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을때만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능력있게 이러한 모든 명령들을 따를 수 있으며 신앙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쉽게 해결되며 구원의 확신과 기쁨, 능력있는 봉사, 모든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할 것을 명하신 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일이었던 것이다. (행 1:4-5) 그래서 찰스·피니(Charles G. Finny)는 “죄인이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이 죄인처럼 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음이 죄다”라고 말했으며 앤드류·머레이(Andrew Murray)는 “성령의 충만함이 그리스도인이나 교회가 하나님에 원하시는대로 살고 일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다”고 말하였던 것이다. 그럼 우리 신자들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인 성령충만에 대해서 간단히 생각해보자.

첫째로 성령의 충만함이란 무엇인가?

성령의 충만함은 증생함을 받은 성도가 영적생활을 계속하는 도중에 반복하여 계속적으로 받은 성령의 비상한 은혜를 말한다. 여기에 “성령의 세례”는 이 성령충만을 받은 “최초의 영적경험”을 뜻한다.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는 단 한번만 받은 경험이 될 것이며 “성령의 충만”은 “성령의 세례”를 받는데서부터 계속될 것이다.

두번째로 증생케하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은 어떻게 다른가?

증생케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어디까지나 신비적인 역사로(요한 3:8)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생명을 얻은 최초의 영적인 경험이다. 그러므로 증생은 순간적이며 단회적이다. 한번 증생한 후에는 그 은혜가 절대 무효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번 증생한 성도는 끝까지 그 구원이 유효한 것이 된다. 그러나 성령충만은 증생한 후에 받은 추가적인 영적 축복으로 이는 반복될 수 있으며 언제든지 “유지” “보존” 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만일 그것이 계속적으로 보존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효가 되며 무효가 된다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엡 5:18의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통사의 시상은 현재명령법으로 현재시상이다.

헬라어로 그 명령사가 부정과거면 그것은 단 한번의 행동을 명하는 것이며 만일 그것이 현재시상이면 그 행동은 계속적인 것을 가르친다. 이 사실을 우리는 에베소서에 나오는 “성령의 인침”(엡 1:14, 4:30)과 충만함을(엡 5:18) 대조함으로써 더욱 뚜렷하게 증생케하는 성령의 역사와 성령충만을 구별할 수 있다. 여기 “인침”이란 말은 모두 부정과거형으로 증생을 뜻하며 구원받음이 절대적인 것을 보여 주지만 충만함이란 현재명령형으로 인침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그 모든 신자가 다 충만을 받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충만함은 현재이며 계속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세째로 성령충만을 받은 증거는 무엇일까?

성령충만의 증거로 방언 진동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이러한 외부적으로 일어나는 증거도 있을 수 있으나 절대적인 증거는 아니다.

그럼 가장 뚜렷하고 확실한 증거는 무엇일까?

① **확신이다**(요한 14:26, 16:14). 성령충만을 받으면 확신에 거하게 된다. (딤후 3:14). 윌리엄·브라이트(William Bright)박사는 성령충만의 증거로 “능력으로서 임하는 교묘한 확신” “은밀히 실감되는 신앙”이라고 했다.

② **충만이다**(요한 10:10). 성령충만을 받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모든 기쁨, 감사, 행복등의 영적생활이 풍성하게 된다. 그래서 커밍(Cumming)은 성령충만을 “다른 하나의 행복”이라고 말한 것이다.

③ **능력이다**(행 1:8). 성령충만을 받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살며 봉사할 수 있는 영적능력이 따르게 된다. 토레이(Torrey)박사는 “성령충만의 증거는 오직 능력이다”라고 했다.

<→ 13p에 계속>

- ☐ 제 9 과 / 제 9 계명
- ☐ 성경 / 출 20 : 16
- ☐ 찬송 / 새 357 (합 351)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하여 인간의 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인간의 혀는 불의한 도구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제 9 계명은 이 혀를 어떻게 단속해야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혀를 단속하기 위하여 두개의 자연적 울타리(즉 이와 입술)와 마지막 울타리가 되는 제 9 계명을 주셨습니다.

1. 이웃을 중상하지 말라

제 9 계명이 금하는 첫번째 교훈은 “이웃을 중상하지 말라”입니다. 전갈은 꼬리에 독을 운반하지만 중상자는 혀에 독을 운반합니다. 즉 중상이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불의하게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에 : 렘 18 : 18). 그런데 성경은 혀로써 참소치 않는 자(즉 중상치 않는 자)가 주의 성산에 오른다고 하였습니다(시 15 : 3).

2.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9 계명이 금하는 두번째 교훈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거짓 증거는 세가지 면에서 합니다.

1) 거짓말 : 거짓말이란 “참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참된 것처럼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이 거짓말을 대단히 미워하십니다(잠 12 : 22). 왜냐하면 성령님은 “진리의 영”(요일 4 : 6)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은 혼자 다니지 않는게 그 특징입니다(에 : 삼하 15 : 7의 압살롬의 거짓말).

2) 거짓되이 증거함 : 거짓 증거는 첫째는 “남을 위해서”하는 것과 두번째는 “남을 반대하여”하는 것이 있는데 전자는 복물이나 다른 유익을 위해서 이고(사 5 : 23) 후자는 사단의 영향을 받아 “공연히 남을 고소”하는 책사 일어납니다(에 : 왕상 21 : 13의 나봇을 거짓 고소한 두 사람).

3) 거짓 맹세 : 거짓 맹세는 흔히 다른 사람의 생명을 희생시킵니다. 그런데 속 8 : 17에 보면 하나님은 거짓 맹세를 미워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간의 혀를 단속할 수 있으며 제 9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시 19 : 9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마음과 혀를 깨끗하게 만드는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② 중상과 거짓 증거를 당하게 될 때에 다윗처럼(삼하 16 : 10)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한다.

왜냐하면 나에게 잘못이 없을때 하나님은 나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시 37 : 6).

③ 우리를 중상과 거짓 증거에서 지켜 주실때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참고, 시 31 : 20)

- ☐ 제10과 / 제10계명
- ☐ 성경 / 출 20 : 17
- ☐ 찬송 / 새 89 (합 64)

이 마지막 계명은 인간의 탐욕을 금지한 계명입니다. 그러면 탐욕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어거스틴은 “충분

구역공과

◇ 9월 공과 ◇

한데도 더 원하는 것”(참고, 잠 30 : 15)이라고 하였으며 또한 “세상에 대한 터무니없는 사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탐욕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1) 오직 이 세상에만 생각을 두는 것이 탐욕이며 반대로 성도는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 생각이 언제나 하늘에 있습니다.

2) 하늘의 것보다는 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하여 애쓰는 것이 탐욕입니다. 이들은 이 세상의 것을 얻기까지 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등한시합니다.

3) 모든 대화가 세상론일때 이것은 바로 탐욕입니다. 이들이 땅의 것만을 말하는 것은 땅에서 난 자요 땅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요 3 : 31). 버나드가 바로 지적한 대로 “말은 마음의 거울”이 되기 때문에 어떤 대화를 많이 하느냐에 따라 그의 생각을 알 수가 있습니다.

4) 마음을 세상의 것과 세상의 일에 두는 것이 탐욕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모든 것을 팔고 와서 나를 좇으라고 한 것은 그 청년의 마음이 세상의 제물에 너무 집착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마 19 : 16-22).

5) 세상의 일에 지나치게 전념하는 것이 탐욕입니다. 세상 일에 너무 시간을 보내게 되면 하나님께 봉사할 시간을 가지기가 어려우므로 세상 일에 지나치게 전념해서도 안됩니다.

6) 불의한 수단으로 재물을 쌓는 것이 탐욕입니다(호 12 : 7).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탐욕을 금하셨을까요? 탐욕은 죄의 근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탐욕을 방지하는 방법은 ① 믿음(요일 5 : 4) ②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을 사랑하지 않아야(전 5 : 10) ③ 영적인 것을 보다 더 사모해야. 왜냐하면 영적 사모는 “하나님의 씨”가 되어 범죄에서 구출해주기 때문입니다(요일 3 : 9). ④ 하늘의 마음 즉 영적 심령을 갖도록 기도해야 하며, ⑤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줄 알아야(빌 4 : 11) 하겠다.

<12p에 이어서>

④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선행이다(갈 5 : 22-23). 참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를 인격과 생활안에 맺게 될 것이다.(마태 7 : 16-20) 그래서 스타트(John R. W. Stott)박사는 성령의 계속적인 충만함은 도덕적인 특성으로 나타난다고 했다.

끝으로 어떻게 성령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 성경구절을 소개하고 마지려한다. ①성령충만의 위대성을 알고 믿어라. (엡 1 : 17-19) ②열심히 사모하라. (시 81 : 10, 마 5 : 6) ③회개하라(행 2 : 38) ④간구하라. (눅 11 : 13)

<연재 끝>

구원은 오직 예수

□ 명동(明洞)에서 400여명이 7월 총동원전도 실시 □

7월의 뜨거운 태양 만큼이나 불붙는 마음으로 지난 7월 13일 400여명의 총현의 성도들은 『구원은 오직 예수』를 외치며 명동(明洞) 거리로 향하였다. 특별집회를 마치고 오후 4시부터 시작된 이날의 노방전도에는 60여명의 남전도회원들과 청년·대학부의 젊은이들과 훈련중인 「농어촌교회 평신도 지도자」 80여명이 함께 하여 이채를 띄었다.

지난 6월 22일을 기하여 시작된 「총동원 전도운동」의 물결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 열기도 더하여 이날 배포된 전도지만도 4만여장이 된다고 한다. 또한 이름 없이 남모르게 전도하기 위하여 일반 평신도들이 배포하는 전도지만도 일주평균 1만여장씩이나 배포된다고 교회 전도부에서는 말하고 있다.

이같은 전도운동을 보다 조직적이면서 결신자들에게 대한 사후처리를 신속하고도 확실하게 취하기 위하여 지난 6월부터 「안드레회」가 운영되고 있다. 이 회의 운영실태를 보면 8월 3일 현재 41명의 회원이 120명을 교회로 인도하기로 약속하였으며 그 가운데 68명을 이미 교회로 인도하여 새신자부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한다.

현재 각 구역을 통해 조직된 「안드레회」를 앞으로 더욱 강화하여 8월부터 월 1회씩 안드레회원들의 모임을 열고 전도운동의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결신자들을 위한 기도회도 열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회원들에 대한 전도훈련과 「안드레회」 운영지도도 실시하게 되리라고 하며 휘경구역이 현재까지는 「안드레회」 운영에 가장 열심이라고 한다.



주교 각부 여름행사 성황

—7월 28일 주교 I부를 필두로 오는 8월 16일 까지—



1975년도 주일학교 각부 여름행사가 장마와 찌는 듯한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 지난 7월 28일 주일학교 I부의 제22회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를 개교로 시작된 올해의 여름행사는 오는 8월 16일 농어촌 전도대가 귀환함으로써 실제적인 활동은 모두 끝을 맺게 되는 데 이 후에 올해의 여름행사를 위한 각부별 및 종합평가까지 이루어지기에는 상

당한 시간이 요한 것이며 8월 말경에야 모든 활동이 끝나게 될 것이라고 한다. 한편 올해의 주일학교 각부 및 기타 기관의 여름행사 계획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새신자·유치·유년·초등부 제22회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 / 7월 28일~31일 / 본교회당 ② 제13회 고등부 수양회 / 7월 29일~8월 1일 / 무궁화촌 ③ 제1회 영아부 여름 성경학교 / 8월 1일 / 본교회당 ④ 제13회 중등부 수양회 / 8월 4일~7일 / 본교회당 ⑤ 제6회 대학부 하기 수양회 / 8월 4일~8일 / 천리포 ⑥ 제6회 청년부 하기 수양회 / 7월 16일~18일 / 불광동 기독교수양관 ⑦ 제3회 어린이 수양회(5학년) / 8월 4일~7일 / 무궁화촌 ⑧ 제4회 농어촌 전도대 파송훈련 / 8월 7일~9일 / 본교회당 ⑨ 제4회 농어촌 전도대 파송 / 8월 11일~16일 / 전국 9개지역 교회 ⑩ 제4회 장로 수양회 / 8월 11일~13일 / 삼천리연탄(주) 운수리 야외교장.

한편 올해의 여름 행사를 위하여 각구역을 통해 헌금된 헌금액은 1,147,400원으로 주교행사에 43만원, 하기 전도에 25만원, 기타 주일학교 교육설비 및 전도대 장비 구입을 위해 47만원을 각각 배정하였다고 한다.

새신자교육 강화

—6개월 훈련과정 마치면 학습을 주기로 하다—

그간 교회 새신자부(지도 정기성 목사)는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인도하는 데 있어 많은 힘을 기울여왔다.

새신자부는 앞으로 이같은 새신자들에 대한 훈련을 더욱 강화하여 매주 2부 예배 후 새신자부실에서 미리 작성된 훈련교안에 의해 총 26시간(주간 40분간씩 1회로하여 모두 6개월)의 훈련과정을 실시하게 되리라고 한다. 그 주의 강의를 마친 후에는 각 조별로 분반하여 담임교사들에 의해 교회생활과 교인으로서의 일반생활에 대한 지도를 받게 한다.

이같은 훈련과정을 모두 마친 새신자들에 대하여는 매주마다 당회

원 배석하에 담임교역자가 문답하여 그 문답결과를 월말 정기당회에 제출하여 증원교회 학습교인으로 인준을 받게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①초신자훈련을 학습자격과 연결시킴으로 새신자들로 하여금 공부할 수 있는 열의를 가지게 하며 ②교회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문답자 수를 분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③학습인준이 피교육자에게 교육수료와 같은 의미를 주어 새신자교육의 질적 유지와 숫자적 발전에 큰 이점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며, 현재 실시중인 「총동원 전도운동」과 병행 실시하게 됨으로 보다 합리적인 조치가 될 것이 분명하다.

하기 전도대 모두 9대로 편성

올해로 이번해(1972년 제 1회 파송)가 되는 하기 전도대(대장 김광철 장로, 지도 홍종만 목사)파송이 올해도 오는 8월 11일부터 16일까지 실시된다고 한다. 그 규모를 보면 7명의 교역자를 포함하여 모두 57명(8월 3일 현재 확정인원)을 모두 9대로 편성하여 주로 충청남북도를 중심으로 전국 9개 교회로 파송하게 되리라고 한다.

아울러 이를 위하여 8월 8일부터 9일까지 파송자 전원에게 대한 전도훈련도 실시한 바 있는데 파송대상교회와 교역자·대장·대원의 명단을 보면 아래와 같다.

① 제 1대 충남 서천군 서천면 둔덕리 낙원교회. 정기성/김은호/신영권·박규남·신성자·임경순 ② 제 2대 충남 서천군 문산면 신농리 문산교회. 홍종만/김구현/안명수·박순옥·이경자·이성애·김인화 ③ 제 3대 충남 서천군 한산면 송산교회. 이준교/오태용/최관식·최명자·한해순·소영희 ④ 제 4대 충남 공주군 계룡면 중장리 중장교회 김일동/이상현/김호완·최해석·박두희·김순애·이신복. ⑤ 제 5대 충남 영광교회. 이승근/이양우/

김준표·이해봉·이철호·김형순·이은순. ⑥ 제 6대 충북 괴산군 갑골면 백양리 양곡교회. 정관일/이인희/최정현·김근의·김옥겸·김인이·이의복. ⑦ 제 7대 충북 제천군 송학면 입석리 입석교회. 김태현/마성락/안석렬·김정옥·최선희·유미숙. ⑧ 제 8대 경북 예천군 용문면 상곡리 금곡교회 김안옥/김경생/김원혜·김정순·이희수·임은숙 ⑨ 제 9대 경남 의령군 화정면 화정교회 이연호/김정기/김정화·정금수

장년부 성경암송 대회

장년부에서는 지난 6월 22일 유년부실에서 3부예배 후에 제 1회 성경암송대회를 열었다고 한다. 188명(남 18명, 여 170명)이 모인 이날 대회에는 11명의 선수가 출전하여 실력을 겨루었다. 이날 특등의 영예는 홍찬옥·김용택 두 분이 차지하였다고 하는데 장년부는 매주 3부예배 후에 유년부실에서 김종택 목사를 강사로 성경공부를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당회는 인도네시아 선교사 후보자 선발문제를 선교회에 일임하다.

◎제적회는 인천항의 복음전도선(배 이름 로고스)을 위하여 도서를 구입(예산 50만원)하기로 하다.

◎지난 7월 20일~29일 까지 대만 교회의 목사 세 분이 우리 교회에서 훈련을 받았다.

◎교육위원회 6월 교사임명 8명, 교사사임 11명.

◎성경학원에서는 「제 4회 농어촌교회 평신도 지도자 초청훈련」평가회를 지난 7월 17일 오후 7시 당회실에서 열었다.

◎성가부는 8월 중에 갖기로 하였던 제 1회 정기대 수양회계획을 변경 강화하여 오는 9월 25일~27일에 여성성가대와 함께 우리교회에서 갖기로 하였다.

◎남전도회는 오는 8월 15일 입석별장에서 회원친교회를 연다고 하는데 회비는 100원.

◎남전도회는 지난 7월 13일 개척교회인 낙원교회에서 설립 3주년 기념 음악예배. 7월 20일 역시 개척교회인 경기 여주의 금현교회 방문하였는데 김성국 집사가 의류 수시점을 기증하였다.

◎새신자부는 교리를 중시하여 가르치던 중전공과를 새신자육성 교재로 재집필하여 실시한다고 한다.

◎유치부는 오는 8월 31일 유치부실에서 성경이야기대회를 연다.

◎중·고등부용 엘프·스피커·마이크를 신품으로 교체한다.

◎중등부는 임원·조장·반장 수련회를 지난 7월 21일~23일 오후에 대학부실에서 가졌다. 70명이 참가하였다.

◎고등부는 오는 8월 11일 임원친목회를 가질 예정이며 오는 24일에는 조별대항 성가경연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대학부 교사를 위하여 편집실(동관 별채) 옥상에 천막을 치기로 하였다.

◎청년부는 매주일 월요일 저녁마다 새신자부실에서 여호수아전도대 기도회로 모이고 있다고 한다.

수기 공모

「충현」지 편집위원회에서는 올해 하기전도대원들의 수기를 모집합니다. 8월 24일까지 원고지 6~12매

충현교회 합동친교대회

- 어떨게 / 체육대회를 중심한 친교순서
- 누가 / 충현교회 성도전체
- 어디서 / 오산중고등학교 교정(예정)
- 언제 / 1975년 10월 9일

충현교회 성경학원

입학 안내

□ 목 적

신·구약 성경을 철저하게 학습시키므로 진리를 바로 터득하게 하고 경건생활을 지도함으로써 건실한 생활인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봉사자를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도

1. 수업연한 : 3년
 2. 학습기간 : 1학기 / 3월~6월
2학기 / 9월~12월
 3. 수업일자 : 매주 월·화·수·목 오후 7시~9시 (수요일은 수요일 저녁예배 때의 성경공부를 정규과정으로 간주함)
 4. 교과과정 : 제 1 학년
1학기 / 성경총론·모세오경·공판복음
2학기 / 성경총론·모세오경·요한복음·사도행전
제 2 학년
1학기 / 성경교리·역사서·대선지서
2학기 / 성경교리·역사서·바울서신
제 3 학년
1학기 / 이단비판·시가서·소선지서
2학기 / 이단비판·보통서신·목회서신·제시록
 5. 입학자격 : 세례교인(다른교회 교인은 이사회가 인준한 사람)
 6. 입 학 금 : 500원
 7. 수 입 료 : 학기당 1,500원
- * 본 성경학원은 학점제입니다.
* 성경연구반도 계속 모집하고 있으며 9월에 개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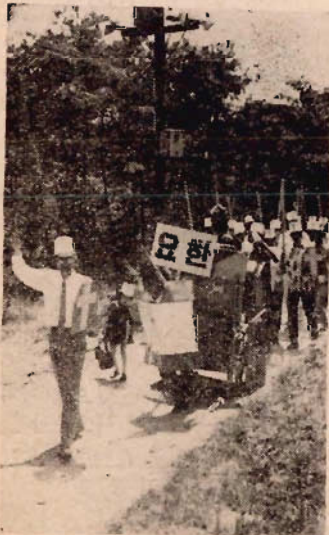
충현교회
성경학원 원장 김 창 인

편견하고 나서

☞...수박덩이 만큼이나 큼직한 태양이 바로 머리 위에서 이글거리고 있다. 세상은 마치 점등이 되어버린듯 열기를 확확 뿜어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무더위도 장대같이 퍼붓는 빗줄기에는 여지없이 사그라져 버리고 만다. 뜨거운 태양은 태양대로, 이를 식히는 시원한 빗줄기는 빗줄기대로 좋지만 이 두가지의 교차를 여름에만 맛볼 수 있기에 또한 여름은 더욱 좋다.

☞...지난 6월 16일 「농어촌교회 교역자 초청훈련」을 시작으로 진행 중인 여러가지 여름 행사는 오는 8월 16일 농어촌전도를 끝으로 막을 내리게 된다. 이번 호에는 이 농어촌전도를 위하여 특별히 전도에 대한 이론과 실제적인 방법을 다루어 보았다. 지면관계도 충분히 다루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전도대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한여름의 땀흘린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인터뷰에 응해주신 대만교회의 세분 목사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다. 한국과 흡사한 실정인면서도 한국교회처럼 대만교회는 합심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가슴아프다고 말씀하신다. 진정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을 주님 앞에 모두 내어놓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지 다시한번 자문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러한 믿음·지혜·열심을 더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마음뿐만이 아니라 손과 발로도 감사하여야 할 것이다. <표>



<교사 합동 친교회 모습>